

## 대학생의 독립적자기관과 진로낙관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과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허 경 민

이 기 학<sup>†</sup>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낙관성의 관계를 진로결정 자율성이 매개하며, 이 경로를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교 3,4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313명을 대상으로 주체성-자율성-대상성 자기관 척도, 진로미래검사, 진로결정 자율성 척도, 진로장애검사 척도 등을 활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분석에는 276명의 학생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독립적 자기관,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낙관성 간의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매개효과 검증 결과, 진로결정 자율성이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낙관성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관계를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SPSS Macro를 이용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낙관성의 관계를 진로결정 자율성이 매개하며, 이 경로를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진로낙관성 발달을 위한 시사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독립적 자기관, 진로낙관성, 진로결정 자율성,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 조절된 매개효과

\* 본 연구는 허경민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독립적자기관과 진로낙관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과 지각된 외적진로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대학생은 본격적인 직업 세계로 이행하기 전 단계로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탐색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시기이다. Arnett(2004)은 이 시기를 청소년기도 아니고 완전한 성인기도 아닌 과도기적 단계라는 의미에서 성인 도래기(emerging adulthood)라고 명명하였다. 이 시기는 청소년기의 보호와 규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지만 경제적 혹은 심리적 독립이나 사회인으로서의 인정 등 명확한 직업적 결과물이 없어 성인기로의 이행을 완전히 종결짓지 못한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Arnett, 2004).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아직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다(곽금주, 2010).

성인도래기가 기존의 성인기와 구별되어 특정 발달시기로 규정될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구직의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기간 또한 길어졌기 때문이다(Arnett, 2007). 특히 시시각각 변화하는 직업 환경과 고용 불안정 속에서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는 그러한 불안정함을 감내하고 착실하게 자신의 목표에 몰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Herr, 2001). 그런 점에서 Rottinghaus, Day와 Borgen (2005)은 진로낙관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진로낙관성이란 진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편안하게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해가는 것을 의미한다(Rottinghaus et al., 2005). 자신의 진로와 관련

하여 낙관적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가 낙관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현재 하고 있는 과업 수행에 있어 안정적인 몰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Hakanen, & Lindbohm, 2008). 이런 맥락에서 진로낙관성은 단순히 결과를 기대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러한 결과를 향해가는 준비 행동과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안녕감을 포괄한다(Rottinghaus et al., 2005). 실제로 진로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진로에 열정적인 흥미를 가지고 몰입하며 자신의 진로 목표와 관련이 있는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고 자신이 성공적인 진로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심리적으로도 편안한 모습을 보인다(McIlveen, Beccaria, & Burton, 2013).

낙관성과 관련한 초기의 연구들은 낙관성을 기질적 변인으로 보았으나(Scheier, & Carver, 1985), 낙관성이 지지적인 환경과 같이 상황적이고 맥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학습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면서(Higgins, Dobrow, & Roloff, 2010; Peters, Flink, Boersma, & Linton, 2010) 최근의 연구들은 낙관성을 기질(trait)로 보기보다는 상황적 요인에 따라 변화 가능한 상태(state)의 개념으로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Higgins et al., 2010). 특히 전반적인 낙관적 경향을 드러내는 일반적 낙관성(general optimism)과 달리 진로와 같은 영역 특수적 낙관성(domain-specific optimism)은 기질보다 발달 가능한 변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McLennan, McIlveen, & Perera,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낙관성에 대한 연구들은 진로낙관성을 진로 맥락에서 긍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선행 변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진로낙관성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지를 보여준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Garcia Restubog, Bordia, Bordia, & Roxas,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 낙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들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경로를 밝힘으로써 대학생들의 진로낙관성 형성을 위해 어떤 실제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진로준비행동의 주체인 현재의 자신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지와 연관된다(Wigfield, & Eccles, 2000).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자신에 대해 능력 있고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진로 발달에 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2001; Lent, Brown, & Larkin, 1986). 그러나 이전 연구들에서 긍정적인 자기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 강조해 온 것에 비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자기개념이 진로 발달에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진로 발달 과정에서 사회환경적 영향력을 강조하며 그러한 영향력을 내적으로 자기 조절하는 것이 진로 발달에 있어 중요한 과제임을 주장하고 있다(Lent, Brown, & Hackett, 2000). 이러한 이론적 주장을 고려할 때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자기를 지각하는 방식도 진로 발달에 유의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진로낙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개념 관련 변인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괄하여 자기를 지각하는 방식과 관련된 변인인 독립적 자기관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기관이란 사회문화적 맥락과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방식을 의미하는데(Markus, & Kitayama, 1991), 그 맥락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보는지, 연결지어 보는지에

따라 하위 유형이 구분된다. 여기서 맥락과 분리하여 자기를 지각할 경우 독립적 자기관(independent self-construal), 맥락과 연결지어 자기를 지각할 경우 상호의존적 자기관(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이 형성된다(Markus, & Kitayama, 1991).

선행 연구에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밝혀진 바 있는데, 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서양인이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진 동양인에 비해 미래에 대해 낙관적 사고를 가진다는 점이다(Chang, Asakawa, & Sanna, 2001; Lee, & Seligman, 199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권에 따라 낙관성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 것에 그쳤을 뿐 문화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의 수준에서 어떠한 심리적 속성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는지 직접적인 경로를 설명해주진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진로 장면에 적용하기 위해선 문화 단위가 아닌 개인의 심리적 속성이 예측하는 설명량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구 문화권의 독립적 자기관을 진로낙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속성으로 상정하고 독립적 자기관과 낙관성의 관계를 살펴려 한다.

실제로 자기관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를 비교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기에 문화심리학 영역에서 발전한 개념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진로 관련 영역에서도 그것이 진로 발달에 유의한 설명량을 제공한다는 연구들(김나래, 이기학, 2016; Piña Watson, Jimenez, & Ojeda, 2014; Sheu, Liu, & Li, 2017)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변인이다. 예를들어 Piña Watson 등(2014)의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관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낮은 진로장벽과 더불어 멕시코계 미국인 여성들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Sheu 등(2017)의 연구에서는 동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독립적 자기관이 학업만족과 결과기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Dean과 Gardner(2014)의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 자기관은 과제를 수행할 때 항상 초점(promotion focus)으로 동기화되어 미래에 있을 잠재적 이득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문화적 배경과 관련 없이 독립적 자기관이 나타내는 심리적 속성이 진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독립적 자기관이 진로 장면에서의 다양한 적응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위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가 일관적으로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자기관이 조절 변인으로 제시되는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관이 적응적 결과를 증대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적응적 결과에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변인을 통제했을 때마저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진 못하였다(김나래, 이기학, 2016). 이를 통해 독립적 자기관이 그 자체로 진로 및 직업 장면에서의 적응성을 설명하는 직접적인 핵심 변인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관과 같은 사회문화적 구성개념이 진로라는 특수적 상황에서의 적응성을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이 보다 정합성 있는 설명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독립적 자기관이 어떤 점에서 낙관성에 영향을 주는 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매개 변인의 존재가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매개변인으로 진로결정 자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심리적 안녕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 욕구로 자율성을 제시하고 있다(Ryan, & Deci, 2000). 자율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과업 수행, 심리적 적응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적응 관련 변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Gagné, & Deci, 2005). 이와 더불어 높은 자율성 수준은 일 장면에서도 그들의 수행능력과 몰입, 만족 및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져(Baard, Deci, & Ryan, 2004; Gagné, & Deci, 2005) 직업 장면을 포함한 다양한 과업 수행 장면에서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Kasser, & Ryan, 2001; Ryan, & Deci, 2000). 특히 진로결정 자율성은 진로 결정 및 준비 과정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준비행동 동기의 자율성 수준을 의미하는데, 진로결정 자율성 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신경증 등 다양한 진로 및 심리적 적응 관련 척도에서 높은 적응 수준을 보였다(Guay, 2005). 그렇기에 진로낙관성과 같이 진로를 준비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율성과 같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율성은 다양한 문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달 가능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자율성의 충족에 있어서 문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따른 상이한 사회적 요구가 개인의 자율성 충족을 촉진할 수도, 혹은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yan, & Deci, 2000). 따라서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다양한 문화적·발달적 차이로 인해 자율성 수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안녕감과 같은 심리적 적응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Ryan, & Deci, 2000).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인 독립적 자기관의 경우 문화·환경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변인은 아니지만 서양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자기 개념이라는 점에서 사회문화적인 구성개념에 근거한 심리적 속성을 측정한다. 특히 독립적 자기관이 높을수록 자신의 흥미와 성격 등 고유한 개성을 존중받길 원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기 실현(self-actualization)과 자기표현(self-presentation)적 동기가 강하다고 나타난 바 있다(Kwan, Bond, & Singelis, 1997; Lalwani, & Shavitt, 2009). 이러한 속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 자기관이 강할수록 진로 결정에 있어서도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자기결정성 이론의 주장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모델을 정리하자면 독립적 자기관을 가질수록 진로결정 자율성이 더 높게 형성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진로낙관성과 같이 진로 준비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와 태도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진로 결정 자율성이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낙관성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관이 진로결정 자율성을 매개로 진로 낙관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진로장벽이란 진로 선택이나 결정 및 진로 관련 행동에 있어서 개인의 진로 발달을 방해하는 개인 내적 혹은 외적 요인을 일컫는다(손은령, 2001).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진로 장벽이 진로 결정과 준비행동 및 몰입(김은영, 2002; 손은령, 2002)과 같은 행동적 변인들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진로 포부와 기대,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 등과 같은 태도와 평가 관련 변인에도 영

향을 미친다(정은이, 2010). 또한 진로장벽은 개인 내적 혹은 외적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개인 내적 요인은 자기이해와 진로 이해 부족 및 자신감 부족과 성격 문제 등의 심리적 진로 장벽을 의미하고, 개인 외적 요인은 학벌과 전공, 경비와 집안사정, 부모와 주변인 등의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진로 장벽들을 의미한다(김수현, 2007). 이 중 외적 장벽은 내적 장벽과 달리 개인의 진로발달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다양한 심리적 차원의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이상희, 2006; Lent et al., 2000) 진로 결정 및 준비과정에서 개인의 흥미와 선택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Lent et al., 2001).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구조적 제약과 외부 환경의 요인들은 진로를 선택하고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들이다. Astin(1984)에 따르면 진로를 결정할 때 개인의 욕구나 흥미와 함께 그 직업에의 접근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여기서 접근 가능성은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 지각된 사회경제적 기회 구조나 성역할 사회화 같은 외적 장벽을 의미한다(손은령, 2004; Astin, 1984). 이렇게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은 원하는 진로 선택을 제한하거나 타협하는 등 진로 결정 및 이행 과정에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Gottfredson, 1981; Lent et al., 2000). 특히 Gottfredson(1981)은 개인의 자아개념과 지각된 접근 가능성, 즉 기회 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립적 자기관과 같은 자아 개념이 외적 진로장벽의 지각과 상호작용하여 진로결정 자율성과 같은 진로결정관련 동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외적 장벽의 영향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연고주의가 강하여(김광수, 1989) 개인의 진로선택에 타인의 영향력이 강하게 지각되므로 외적 장벽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손은령, 2004; Tang, Fouad, & Smith, 1999). 실제로 손은령(2001)의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진로장벽의 요인구조를 탐색한 결과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이라는 한국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요인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아무리 개인적 효능감이 뛰어나고 흥미가 뚜렷하더라도 자신이 진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회 구조가 제한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이상 진로결정에 있어서 충분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을 독립적 자기관이 진로결정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독립적 자기관은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명확히 알고 이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려는 속성이 있으나(Piña Watson et al., 2014), 높은 외적 장벽의 지각 하에서는 환경과의 타협이 일어나 이러한 잠재적 속성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진로낙관성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결정 자율성, 그리고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의 영향력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낙관성의 관계를 진로결정 자율성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관계를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이 조절할 것이다.

가설 3.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낙관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의 조절을 포함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대학생 3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조절변인인 외적 진로장벽이 내용적으로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의 대학생들을 모두 포함시켜 다양하게 연구 대상을 모집하였다. 또한 외적 진로장벽의 요인 중 ‘나이와 신체조건’ 요인 중 나이와 관련한 문항(나이 때문에 진로 계획과 실행에서 지장을 받을 것이다.)의 내용을 고려할 때 대학교 3,4학년에 해당하는 연구 대상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7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남학생 118명(42.8%), 여학생 158명(57.2%)의 총 276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4.24세( $SD=1.80$ )이며, 학년 분포는 3학년 127명(46.0%), 4학년 133명(48.2%), 5학년 이상 16명(5.8%)이다. 전공별 분포는 인문·사회계열 80명(29.0%), 자연·공학계열 106명(38.4%), 상경계열 39명(14.1%), 예체능계열 13명(4.7%), 기타 38명(13.8%)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 86명(31.2%), 경기 35명(12.7%), 강원·충청지역 52명(18.8%), 경상·전라지역 87명(31.6%), 제주·기타지역 16명(5.8%)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독립적 자기관 측정도구

독립적 자기관을 측정하기 위해 이누미야, 한민, 이다인, 이주희, 김소혜(2007)의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를 사용했다. Markus와 Kitayama(1991)가 구분한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권의 구분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념인데 이누미야 등(2007)은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자기관이 세분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두 자기관의 구분을 세 가지로 세분화시켰다. 이때 이누미야 등(2007)은 개인이 자신을 사회적 맥락에서 분리된 존재로 보는 경우를 ‘자율성 자기관’이라는 명칭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개념이 기존의 독립적 자기관에 해당되는 개념임을 명시했다(이누미야 등, 2007). 반면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는 기존의 상호의존적 자기관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관계적 영향력의 방향에 따라 ‘주체성 자기관’과 ‘대상성 자기관’으로 세분화시켰다. 즉, 대인관계에서 영향을 발휘하는 주체이면 주체성 자기관이, 영향을 수용하는 대상이면 대상성 자기관이 발달한다고 보았다(이누미야 등, 2007). 따라서 이누미야 등(2007)의 척도는 자율성 자기관, 주체성 자기관, 대상성 자기관 등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관의 조절 효과를 보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독립적 자기관을 의미하는 자율성 자기관 요인의 6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편하다”,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등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적 자기관이 강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누미야 등(2007)의 연구에서 독립적 자기관 요인의 Cronbach's  $\alpha$ 는 .7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6으로 나타났다.

### 진로결정 자율성 측정도구

진로결정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Guay(2005)가 진로결정 자율성 척도(CDMAS;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ous Scale)를 한주옥(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율성 척도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정의한 4가지 유형의 동기, 즉 내적 동기, 확인된 조절, 부과된 조절, 외적 조절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8개의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4개의 이유(동기)를 묻는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준비 행동의 예시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각 행동에 대한 4개의 이유(동기)를 묻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A)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외적 조절), (B) 내가 이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죄책감이나 불안을 느낄 것 같아서이다(부과된 조절), (C) 이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확인된 조절), (D)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내적 동기).

본 척도는 리커트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동기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유형의 동기를 측정한 뒤 진로결정 자율성 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Guay, Senécal, Gauthier과 Fernet (2003)에서는 (내적 동기 + 확인된 조절)-(부과된 조절 + 외적 조절)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Guay 등

(2003)의 방식으로 진로결정 자율성 지수를 계산하였다. 한주옥(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3 이었고, Guay(2005)의 연구에는 .91-.95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85-.93으로 나타났다.

### 진로낙관성 측정도구

진로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Rottinghaus 등 (2005)이 개발하고 최옥현과 김봉환(2006)이 번안 및 타당화한 진로미래검사(Career Futures Inventory; CFI)를 사용하였다. 진로미래검사는 진로적응성, 진로낙관성,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 등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종속 변인인 진로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진로낙관성 요인의 11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시는 “진로에 대해 생각하면 나는 힘이 난다”, “나는 나 자신의 진로 희망을 추구함에 있어 열정적이다” 등을 들 수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낙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옥현과 김봉환(2006)의 연구에서 진로낙관성의 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 측정도구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김수현(2007)이 개발한 진로장애검사를 사용하였다. 김수현(2007)의 진로장애검사는 심리적 진로장애 요인과 객관적/환경적 진로 여건 두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환경적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하위차원 중 객관적/환경적 진로 여건만을 측정하였다. 김수현(2007)의 척도가 다른 진로장벽 척도들과 다른 점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심리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으로 명확히 구분하였고, 특히 맥락적 요인들에 대한 집중 연구여서 보다 다양한 외적 진로장벽 요인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객관적/환경적 진로 여건의 하위 요인은 취업기반 부족(4문항), 학벌과 전공(2문항), 나이와 신체조건(3문항), 경비와 집안 사정(2문항), 부모와 주변인(2문항) 등 5가지 하위 요인이며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의 예시는 “취업을 직접적으로 알선해 줄 인맥이나 뒷배경이 부족하다”(취업 기반 부족), “학벌이 모자란다”(학벌과 전공), “나이 때문에 진로 계획과 실행에서 지장을 받을 것이다”(나이와 신체조건), “집안 사정으로 꿈을 포기해야 한다”(경비와 집안 사정), “부모님이나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간섭한다”(부모와 주변인) 등이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적 진로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0으로 나타났다.

### 절차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우선 SPSS 2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Pearson의 상관계 계수를 사용하여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낙관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와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PSS Macro를 통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절 효과의 검증을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모형의 절차에 근거하여



SPSS Macro PROCESS의 모델 1을 통해 조절변인이 투입된 경로에서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통합 모형인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마찬가지로 SPSS Macro PROCESS의 모델 7을 사용하여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 수준에 따라 독립적 자기관이 진로결정 자율성을 매개로 진로낙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 결 과

###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있다.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독립적 자기관의 경우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율성( $r=.221, p<.01$ )과 종속변인인 진로낙관성( $r=.293, p<.01$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율성과 종속변

인인 진로낙관성 사이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503, p<.01$ ). 다음으로 조절변인인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의 경우 독립적 자기관( $r=-.141, p<.05$ ), 진로결정 자율성( $r=-.427, p<.01$ ), 그리고 진로낙관성( $r=-.489, p<.01$ )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개효과 분석

독립적 자기관이 진로결정 자율성을 통해 진로낙관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 단계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단계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독립적 자기관이 종속변수인 진로낙관성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17, t=2.7958, p<.01$ ).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독립적 자기관이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율성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22, t=3.3853, p<.001$ ). 다음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독립적 자기관	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낙관성
독립적 자기관	-			
외적 진로장벽	-.141*	-		
진로결정 자율성	.221**	-.427**	-	
진로낙관성	.293**	-.489**	.503**	-
평균	22.35	37.17	16.69	33.59
표준편차	3.71	7.95	23.92	8.43

주. \* $p<.05$ , \*\* $p<.01$

표 2.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beta$	t
1단계	진로낙관성	독립적자기관	0.3663	.1310	.17	2.7958**
2단계	진로결정 자율성	독립적자기관	1.3580	.4012	.22	3.3853***
3단계	진로낙관성	독립적자기관	0.1634	.1192	.08	1.3711
		자율성	0.1494	.0177	.42	8.4376***

주. \*\*\* $p < .001$ , \*\* $p < .01$

표 3.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재검증

변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진로결정 자율성	.2029	.0696	.0808	.3561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독립변수인 독립적 자기관의 영향력을 제외하고도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율성이 종속변수인 진로낙관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 = .42$ ,  $t = 8.4376$ ,  $p < .001$ ). 이때, 독립변수인 독립적 자기관이 종속변수인 진로낙관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beta = .1634$ ,  $t = 1.3711$ ,  $p > .05$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율성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매개모형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SPSS Macro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표본의 수를 5000개로 설정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구하였다. 분석 결과 간접 효과 계수는 .2029였으며, 하한값 .0808, 상한값 .3561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 실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 조절효과 분석

독립적 자기관이 진로결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의 조절효과를 SPSS Macro PROCESS의 모델 1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한 뒤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절효과 분석 결과 독립적 자기관이 진로결정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 수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eta = -.14$ ,  $t = 2.3749$ ,  $p < .05$ ).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 자기관과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의 회귀계수를 중다회귀방정식에 대입한 후 회귀식을

표 4. 조절효과 검증

	종속변수 : 진로결정 자율성					
	비표준화 계수		$\beta$	$t$	LLCI	ULCI
	$B$	$SE$				
상수	83.5477	24.2005	-	3.4523***	35.9004	131.1950
독립적자기관	1.3845	0.3762	.22	3.6807***	0.6439	2.1251
외적 장벽	-1.1108	0.1691	-.37	-6.5691***	-1.4437	-0.7779
독립적자기관 X 외적 장벽	-0.0872	0.0367	-.14	-2.3749*	-0.1595	-0.0149

주. \*\*\* $p < .001$ , \* $p < .05$

유도하여 그 결과를 그래프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의 그래프와 같이 독립적 자기관이 높은 학생들이 진로결정 자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의 수준이 낮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진로 장벽 수준이 높을 때에는 독립적 자기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의 폭이 줄어들어 독립적 자기관의 긍정적인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의 수준에 따라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조절변인이 연속변인인 경우 주로 조절변인의 -1 표준편차를 낮은 수준으로, +1 표준편차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조절변인의 각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Aiken, West & Reno, 1991). 이와 더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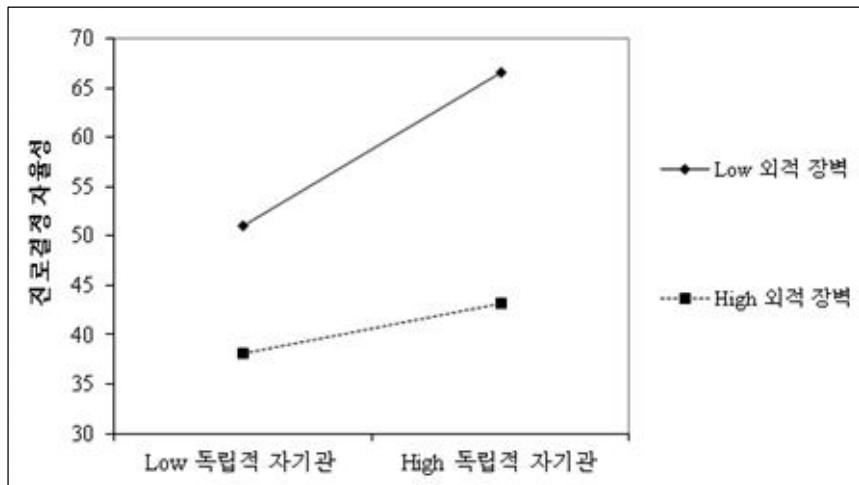


그림 1.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관계에서 외적 진로장벽의 조절효과

표 5.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의 조건값에 따른 상호작용 유의성 검증

	조건값	B	se	t	LLCI(b)	ULCI(b)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	10%	2.27	.57	3.95***	1.14	3.40
	16% (-1 SD)	2.08	.51	4.03***	1.06	3.09
	25%	1.84	.45	4.08***	.95	2.72
	50%	1.40	.38	3.70**	.66	2.14
	75%	.96	.39	2.49*	.20	1.72
	84% (+1 SD)	.69	.43	1.60	-.16	1.54
	90%	.53	.47	1.11	-.41	1.46

주. \*\*\* $p < .001$ , \*\* $p < .01$ , \* $p < .05$

어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관이 진로결정 자율성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가 지각된 외적 장벽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일 때까지 유의하게 유지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진로장벽 수준이 각각 10%, 25%, 50%, 75%, 90%일 때의 조건부 효과의 유의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SPSS Macro를 활용하여 각 조건부에 따른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적 자기관이 진로결정 자율성에 미치는 효과가 외적 진로장벽의 +1 표준편차 수준, 즉 약 84% 수준일 때부터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본 연구의 최종 가설인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Preacher, Rucker와 Hayes(2007)의 방법을 적용하여 SPSS Macro PROCESS 모델 7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6에 제시하였듯이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독립적 자기관과 조절변인인 외적 진로장벽의 상호작용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다( $\beta = -.14$ ,  $t = -2.3749$ ,  $p < .05$ ). 또한,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율성에서 종속변인인 진로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 = .42$ ,  $t = 8.4376$ ,  $p < .001$ ). 이는 독립적 자기관이 진로결정 자율성을 통해 진로 낙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영향이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외적 진로장벽의 조건 값을 이용하여 진로결정 자율성을 통해 진로 낙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와 신뢰 구간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트스트랩 표본의 수를 5000개로 설정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구하였다. 위의 조절 효과 분석과 마찬가지로 진로장벽이 1SD 높거나 낮은 조건부 수준을 포함하여 진로장벽 수준이 각각 10%, 25%, 50%, 75%, 90%일 때의 조건부 효과의 유의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외적 진로장벽이 1SD 높은 수준, 즉 약 84%부

표 6.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수 : 자율성					
	비표준화계수		$\beta$	$t$	LLCI( $b$ )	ULCI( $b$ )
	$B$	$se$				
상수	83.5477	24.2005	-	3.4523***	35.9004	131.1950
독립적자기관	1.3845	0.3762	.22	3.6807***	0.6439	2.1251
외적 장벽	-1.1108	0.1691	-.37	-6.5691***	-1.4437	-0.7779
자기관X장벽	-0.0872	0.0367	-.14	-2.3749*	-0.1595	-0.0149

	종속변수 : 낙관성					
	비표준화계수		$\beta$	$t$	LLCI( $b$ )	ULCI( $b$ )
	$B$	$se$				
상수	16.9133	7.7933	-	2.1702*	1.5696	32.2569
자율성	0.1494	0.0177	.42	8.4376***	0.1145	0.1843
독립적자기관	0.1634	0.1192	.08	1.3711	-0.0712	0.3980

주. \*\*\* $p < .001$ , \* $p < .05$

표 7. 지각된 진로장벽 조건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조건값	$B$	$se$	LLCI( $b$ )	ULCI( $b$ )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	10%	.3393	.1044	.1402	.5634
	16% (-1 SD)	.3108	.0921	.1437	.5093
	25%	.2742	.0831	.1255	.4531
	50%	.2090	.0687	.0859	.3538
	75%	.1439	.0661	.0237	.2829
	84% (+1 SD)	.1033	.0706	-.0368	.2484
	90%	.0787	.0763	-.0688	.2290

터는 독립적 자기관이 진로결정 자율성을 통해 진로낙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진로장벽 수준이 일정 수준(84%) 이상으로 높아지면 독립적 자기관이 진로결정 자율성을 통해 진로낙관성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독립적 자기관이 진로낙관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율성과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이 검증되었으며 검증된 연구모형과 각 경로의 표준화 계수를 그림 2에 함께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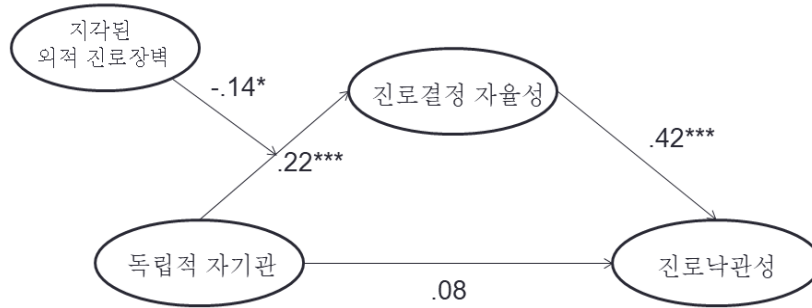


그림 2.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결과

### 논 의

본 연구는 독립적 자기관이 진로낙관성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기 위해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낙관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이것이 통합된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 및 이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낙관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율성이 두 변인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적 자기관을 가질수록 진로결정 자율성 수준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진로낙관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독립적 자기관이 낙관성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는데(Chang et al., 2001; Lee, & Seligman, 1997)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자기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아닌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두 변인의 관

련성이 어떤 매커니즘으로 나타나는 지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매개모형에서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어 독립적 자기관이 직접 진로낙관성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진로결정 자율성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독립적 자기관 수준이 높더라도 높은 진로낙관성을 발달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안녕감을 위해 문화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인 욕구가 자율성에 대한 욕구이다(Ryan, & Deci, 2000). 즉, 집단주의 문화권과 같이 관계성을 중시하는 문화 등 문화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지라도 개인의 안녕감에 있어서는 자율성의 충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진로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한 낙관적 결과 기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준비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의 자기결정적 수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관계에서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 수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 수준에 따라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처해있는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 개인이 가진 독립적 자기관이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절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적 진로장벽 수준이 높을수록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정적인 관계가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각된 장벽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독립적 자기관이 진로결정 자율성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7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진로장벽이 백분율 약 84%(평균에서 +1 표준편차)일 때부터는 독립적 자기관의 유의한 효과가 사라졌다. 원자료의 점수로 나타내면 진로장벽의 가능한 점수 구간이 13~65점이고 평균이 37.17점일 때 45.12점 이상, 즉 5점 리커트 척도 기준 한 문항 당 평균 약 3.47점 이상을 넘어서면 효과의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점 리커트 척도 기준으로 3.47점은 “보통이다~그렇다” 사이의 응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장벽이 있다고 지각되는 순간 이미 독립적 자기관의 효과가 유의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독립적 자기관이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아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외적 장벽의 지각은 독립적 자기관이 자율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맥락적 변인이 개인의 진로 선택 과정에서 흥미와 선택 수준을 조절한다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Lent et al., 2000). 또한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 기회구조 등의 외적인 요인에 의해 진로 선택이 제한되거나 흥미와 타협될 수 있다는 Gottfredson(1981)의 주장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독립적 자기관이 강한 개인은 자신의 내적인 흥미와 고유한 가치를 명확히 알고 있으나 자신이 처한 외적 여건이 이를 성취하기 힘든 여건이라고 지각될 때 진로 결정에 있어 본래의 흥미 및 추구하는 가치와 타협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강한 독립적 자기관의 개인이 높은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적 장벽에 대한 지각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독립적 자기관이 기존에 진로 발달 장면에서 적응적 결과와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된 바 있고(Sheu et al., 2017), 본 연구에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지해줄 수 있는 환경적 여건에 대한 지각이 선행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일 것이다.

셋째, 독립적 자기관이 진로낙관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의 조절효과를 포함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절된 매개효과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의 각각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이를 통합적인 모델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독립적 자기관이 진로결정 자율성을 통해 진로낙관성에 미치는 매개 효과가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에 의해 조절되었다. 즉,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 수준이 높을수록 매개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의 조절효과 검증에서와 마찬가지로 외적 진로장벽 수준이 약 84%(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상이 되는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독립적 자기관이 강한 개인이 외적 진로장벽이 있다고 지각한다면 진로결정 자율성을 형성시키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로 낙관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맥락적인 요인들이 직접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변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Lent et al., 2000), 본 연구 결과에서도 진로장벽의 조절효과가 직접 진로낙관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로결정 자율성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적 장벽과 같은 맥락적 요인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이론적 주장이 본 연구에서도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낙관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이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며, 독립적 자기관이 강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외적 장벽이 있다고 지각하면 그러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용적 함의도 시사한다.

먼저 본 연구의 매개모형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지지되었기 때문에 진로낙관성의 발달을 위해서는 독립적 자기관의 직접적인 영향력보다 진로결정 자율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에 초점을 둔 진로 상담 장면에서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독립적 자기관을 포함하여 자율성 발달을 위한 다양한 선행 변인들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바 있는데 이러한 변인들을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진로결정 자율성의 선행 변인 중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독립적 자기관의 경우 문화라는 거시적 단위의 속성에 기반을 둔 변인으로 개념이 정립된 바 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문화적 차원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발달 가능한 변인

으로 제시되고 있다(Hansen, & Pang, 2010). 특히 실험 장면에서 간단한 인지적 점화(ex. 가족과 나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는 과제를 수행하자 독립적 자기관이 강해졌음; Singelis, 1994)를 통해서도 독립적 자기관이 촉진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안정적인 성향이나 기질보다 인지적 차원의 변인으로 접근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도 개인의 독립적 자기관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담 전략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자율성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지지를 통해서도 발달 가능하다(Guay et al., 2003). 자율성의 발달은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는데,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가 자율성 수준의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Martínez, Pérez, & Cumsille, 2014). 또한 일 환경에서는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업무 환경이(Gillet, Gagné, Sauvagère, & Fouquereau, 2013), 교육 환경에서는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Ruzek et al., 2016)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자율성이 주변인의 역할, 학교 및 회사의 역할이 중요한 변인인 만큼 개인의 자원 개발에 초점을 두기보다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독립적 자기관이 높아도 외적 진로장벽이 지각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것의 진로결정 자율성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외적 장벽의 탐색과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개인이 사회적 맥락과 분리해서 자기를 지각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외부 여건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성취하



는 데 방해물로 작용한다고 지각한다면 자율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개인은 사회라는 기회 구조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가 강한 연고주의로 이러한 외적 장벽의 타격을 대학생들이 크게 지각할 가능성(김광수, 1989; 손은령, 2004)을 고려해 본다면 개인 차원의 노력을 넘어 산업현장에서의 구조적 변화 및 사회적 인식의 개선도 동시에 요구되리라 본다

한편 손은령(2004)은 내담자들이 지각하는 외적 진로장벽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 또한 상담 장면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았는데, 이는 장벽에 대한 지각이 현실적인 판단이 결여된 채 낙관성을 유지하기만 하는 것보다 적응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손은령, 2004). 그러므로 장벽에 대한 지각을 반드시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는 태도를 취하기보다 이러한 인식이 현실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음을 지지해주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자율성의 개념적 속성을 이해해볼 때 완전히 상충되는 문제도 아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자율성은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여야만 확립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자기조절하여 내재화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Lent et al., 2000). 예를 들어 Swanson 과 Tokar(1991)에 따르면 외적 장벽의 지각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데 이는 외적 장벽의 존재를 위협이 아닌 도전이라고 인식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외적 장벽의 지각 자체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외적 장벽의 지각에도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한 데이터라는 점에서 연구 참가자의 응답 편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적 진로장벽의 경우 객관적 여건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응답자의 지각에 의해 실제 객관적 여건과 달리 편향된 응답을 하였을 수 있다. 그렇기에 실제 임상적 적용에 있어 객관적인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장벽 문제를 논의해야 할지, 내담자의 지각에 초점을 두어 장벽 문제를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지각과 실제 객관적 여건을 분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다각도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이 시간차 없이 동시에 측정되었기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진로낙관성의 발달 가능한 측면이 선행 연구를 통해 많이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해당 변인을 타고난 성향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Carver, & Scheier, 2014)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위해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변인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관련성을 감소시키는 외적 진로장벽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앞서 자세히 설명하였듯이 장벽의 지각에도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탐색이 후속 연구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금주 (2010). *흔들리는 20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 문화원.
- 김광수 (1989). 지역사회의 연고주의 (-혈연 지연 학연의 관계망과 실태-): 연고주의와 정치적 선택 행위. *연구총서*, 3(단일호), 27-50.
- 김나래, 이기학 (2016). 대학생의 일 자유의지와 진로만족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9(1), 47-64.
- 김수현 (2007). 대학생의 진로장애에서 심리적 진로장애와 객관적/환경적 진로여건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57-1078.
- 김은영. (2002).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 (KCBI) 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219-240.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상담학연구*, 2(2), 251-262.
- 손은령. (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 심리적 변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15-427.
- 손은령 (2004). 진로선택과정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의 역할. *상담학연구*, 5(3), 623-635.
-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민, 이다인, 이주희, 김소혜 (2007).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17-34.
- 이상희 (2006). 진로발달에서 진로장벽과 사회적지지지의 역할: 사회인지 진로이론 (SCCT) 과 사회인지 이론의 검증. *상담학연구*, 7(4), 1123-1135.
- 정은이. (2010).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장애, 진로포부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3(4), 75-91.
- 최옥현, 김봉환 (2006). 대학생의 진로낙관성과 진로적응성: Career Futures Inventory (CFI) 의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7(3), 821-833.
- 한주옥 (2004).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CA: Sage.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 Astin, A. W. (1984). Student involvement: A developmental theory for higher educ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4), 297-308.
- Baard, P. P., Deci, E. L., & Ryan, R. M. (2004). Intrinsic need satisfaction: A motivational basis of performance and well-being in two work setting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10), 2045-2068.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2001). Self-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1), 187-20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arver, C. S., & Scheier, M. F. (2014). Dispositional optimism.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8(6), 293-299.
- Chang, E. C., Asakawa, K., & Sanna, L. J. (2001). Cultural variations in optimistic and pessimistic bias: Do Easterners really expect the worst and Westerners really expect the best when predicting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3), 476-491.
- Dean, K. K., & Gardner, W. L. (2014). How will “I” versus “we” perform? An investigation of future outlooks and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0(8), 947-958.
- Gagné, M., & Deci, E. L. (2005).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work motiv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4), 331-362.
- García, P. R. J. M., Restubog, S. L. D., Bordia, P., Bordia, S., & Roxas, R. E. O. (2015). Career optimism: The roles of contextu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8(6), 10-18.
- Gillet, N., Gagné, M., Sauvagère, S., & Fouquereau, E. (2013). The role of supervisor autonomy support, organizational support, and autonomous and controlled motivation in predicting employees'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2(4), 450-460.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Guay, F. (2005). Motivations underlying career decision-making activities: Th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 (CDMA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77-97.
- Guay, F., Senécal, C., Gauthier, L., & Fernet, C.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165-177.
- Hakanen, J. J., & Lindbohm, M. L. (2008). Work engagement among breast cancer survivors and the referents: The importance of optimism and social resources at work. *Journal of Cancer Survivorship*, 2(4), 283-295.
- Hansen, M. H., & Pang, C. (2010). Idealizing individual choice: Work, love, and family in the eyes of young, rural Chinese. In M. H. Hansen & R. Svarverud (Eds.), *iChina—The rise of the individual in modern Chinese society* (pp. 1 - 38). Singapore: NIAS Press.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err, E. L. (2001). Career development and its practice: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3), 196-211.
- Higgins, M., Dobrow, S. R., & Roloff, K. S. (2010). Optimism and the boundaryless career: The role of developmental relationship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1(5), 749-769.
- Kasser, T., & Ryan, R. M. (2001).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Optimal functioning and the relative attainment of intrinsic and

- extrinsic goals. In P. Schmuck & K. M. Sheldon (Eds.), *Life goals and well-being: Towards a positive psychology of human striving* (pp. 116-131). Ashland, OH, US: Hogrefe & Huber Publishers..
- Kwan, V. S. Y., Bond, M. H., & Singelis, T. M. (1997). Pancultural explanations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5), 1038-1051.
- Lalwani, A. K., & Shavitt, S. (2009). The “me” I claim to be: Cultural self-construal elicits self-presentational goal pursu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1), 88-102.
- Lee, Y. T., & Seligman, M. E. (1997). Are Americans more optimistic than the Chine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1), 32-40.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Lent, R. W., Brown, S. D., & Larkin, K. C. (1986). Self-efficacy in the prediction of academic performance and perceived career op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3), 265-269.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artínez, M. L., Pérez, J. C., & Cumsille, P. (2014). Chilean adolescents' and parents' views on autonomy development. *Youth & Society, 46*(2), 176-200.
- McIlveen, P., Beccaria, G., & Burton, L. J. (2013). Beyond conscientiousness: Career optimism and satisfaction with academic maj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3*(3), 229-236.
- McLennan, B., McIlveen, P., & Perera, H. N. (2017). Pre-service teachers' self-efficac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optimism.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63*(4), 176-185.
- Peters, M. L., Flink, I. K., Boersma, K., & Linton, S. J. (2010). Manipulating optimism: Can imagining a best possible self be used to increase positive future expectancie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5*(3), 204-211.
- Piña Watson, B., Jimenez, N., & Ojeda, L. (2014). Self-construal, career-decision self-efficacy, and perceived barriers predict Mexican American women's life satisfac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3), 210-223.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ottinghaus, P. J., Day, S. X., & Borgen, F. H. (2005). The Career Futures Inventory: A measure of career-related adaptability and optim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3-24.
- Ruzek, E. A., Hafen, C. A., Allen, J. P., Gregory, A., Mikami, A. Y., & Pianta, R. C. (2016). How teacher emotional support motivates students: The mediating roles of perceived peer relatedness, autonomy support, and competence. *Learning and Instruction, 42*(4),

- 95-103.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3), 219-247.
- Sheu, H. B., Liu, Y., & Li, Y. (2017).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in China: Testing a modified social cognitive mode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5(1), 144-158.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80-591.
- Swanson, J. L., & Tokar, D. M. (1991).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1), 92-106.
- Tang, M., Fouad, N. A., & Smith, P. L. (1999). Asian Americans' career choices: A path model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ir career choi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1), 142-157.
- Wigfield, A., & Eccles, J. S. (2000). Expectancy - value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68-81.

원 고 접 수 일 : 2018. 01. 29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5. 04

게 재 결 정 일 : 2018. 05. 04

## **The Influence of Independent Self-Construal on Career Optimism: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Perceived External Career Barriers**

**Kyungmin Heo**

**Ki-Ha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external career barriers through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self-construal and career optimism. Participants included 313 junior and senior university students who completed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Cultural Self-construal Scale, Career Futures Inventory,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 Career Barriers Inventory; data from 276 participants was analyze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variabl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a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self-construal and career optimism was found. Third,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external career barri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self-construal and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was found. Finally, it was also found that perceived external career barriers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independent self-construal on career optimism through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Key words* : independent self-construal, career optimism,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perceived external career barriers, moderated mediating effect